

‘18세기학’의 연구가 필요하다

김 현 선

경기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조선 후기는 문화적으로 난속도를 높인 시기이다. 특히 18세기는 제 분야가 상이한 경향을 보이면서 예술사적 전환을 꾀한 시기로 평가된다. 이러한 전환의 궁극적 이유는 더 말할 나위 없이 주체적 인식과 자아각성이 이루어진 때문이다. 중세적 보편주의에서 벗어나 민족주의적 시각이 싹트면서 문화적 전환이 점진적으로 부지불식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는 중세봉건의 견고한 벽이 와해되고, 차츰차츰 벽돌을 깨내서 근대시민사회로 옮겨가는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게 된다.

조선후기의 문학을 살피게 되면, 어느 한 경향이 흐른 것이 결코 아님을 알게 된다. 커다란 두 경향이 공존하게 되니 중세적 봉건 체제를 견고하게 준수하는 쪽과 이와는 다르게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려는 진보적인 쪽이 극명한 대립을 보이면서 공존하게 된다. 따라서 이 상이한 대립이 문학 작품에 공존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문학 자체에만 나타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문학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갈래가 회화와 음악이 아니었던가 한다. 회화와 음악에서도 우리 것에 대한 재인식이 이

루어지고 우리 것을 밀천삼아 새로운 양식을 창출하게 된다. 이 가운데서 회화의 진경산수화와 풍속화, 음악의 판소리는 전에 없이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예술품임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리라 믿는다. 그리고 보니 문학, 회화, 음악이 양식적 일치를 보이면서 새로운 흐름을 형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18세기의 예술사적 전환이 온전히 해명되기 위해서는 총괄적 학문론이 반드시 요청된다. 문학, 회화, 음악이 서로 따로 놀지 않고 일관된 양식과 사조를 공유했듯이 예술사적 안목을 손상시키지 않는 총괄적 학문론이 절실하게 요망된다. 어느 한 분야만 독립시켜 다루면 전체적 지평이 사라져 공허해질 위험성이 무척 크다. 그런데 18세기의 예술사가 이러한 각도에서 적극적으로 해명되는 것 같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좀체로 정합적 학문론으로 승화시킬 조짐은 없다. 게다가 18세기는 예술사에서만 특이한 조류를 보인 것이 아니라 철학이나 제 학문의 상이한 경향이 동시에 나타났으므로 이것마저 해명할 수 있는 고도의 학문적 접근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18세기의 문화사적 정점이 규명되기 위해서

‘18세기학’이 필요하다. 어느 한 분야만 다루는 학문적 폐쇄주의를 거부하고, 일관된 도달점을 가지는 체계적 학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잠정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이 자리에서 ‘18세기학’이라 명명하기로 한다. ‘18세기학’은 물론 ‘17세기학’과 ‘19세기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함은 물론이다. ‘18세기학’이 미세한 사상과 거시적 전망이 이상적으로 결합되어야 함은 당연한 전제이다.

그러면 18세기의 예술사적 전환이 진실로 현재와 연결되는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지나버린 과거가 무슨 쓸모가 있는가? 과거의 화려한 전환이 오늘날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당연히 제기되는 의문이다. 그러나 이 의문은 전혀 무모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18세기의 예술사적 전환이 오늘날의 현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험사리 추론할 수 있다. 18세기의 예술사적 전환은 성풍속화에도 강력한 영향을 끼쳤다. 지금까지 성풍속화의 실상이 자세하게 전해지지 않아 과연 18세기에 성풍속화가 존재했는지 의아해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성풍속화의 실체는 생생하게 남아 있으나 그것이 전해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셈이다. 성풍속화는 춘화(春畵), 운우도(雲雨圖), 춘의도(春意圖), 성희도(性戲圖) 등의 이칭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자료가 적지 않다. 예컨대 성풍속화의 실제 사실은 『매옹한록(梅翁閑錄)』과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 그대로 전해진다. 여기에 적힌 내용은 핵심만 옮긴다면 춘화의 존재가 중국에서 유래하여 활발하게 통용되어 있다고 해서 충분히 우리나라에 성풍속도의 관심이 고조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방증이 된다.

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방증을 넘어서서 실제로 성풍속화 존재가 남아있어서 성풍속화의 위와가 18세기에 매우 높았음을 절감하게 한다. 김홍도의 ‘춘화사계첩(春畵四季帖)’이나 신윤복의 작품으로 전해지는 것들이 오늘날에 전한다. 이들 작품에 대한 끊임없는 시비가 얽혀 있기는 해도 필치, 구도, 설채 등이 단원과 혜원

의 것과 흡사해서 그들의 진적에 근사함을 느낄 수 있다. 아무튼 이들이 이미 풍속화에 일가를 이룬 작가여서 성풍속화라 해서 저절로 배제했을 까닭이 전혀 없다. 오히려 성풍속화의 가치가 매우 고가로 매겨짐으로 해서 도화원 화공에 부럽지 않은 상업적 효용가치도 지녔을 것이었음은 사실이다. 따라서 성풍속화의 가치가 남다르게 제고되었음을 입증하는 사례가 된다. 일설에 신윤복이 도화원에서 쫓겨난 것은 바로 문제의 춘의도 때문이라고 한다.

김홍도와 신윤복의 성풍속화는 공교롭게도 두 화가의 사승관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로 된다. 지금까지 단원이 혜원의 스승일 가능성이 높다는 추정이 왕왕 있었는데, 최근에 공개된 단원의 그림은 혜원에게 정면으로 계승되었음을 입증하는 확실한 사례이다. 두 화가의 그림은 몇 가지 측면에서 뚜렷한 공통점이 존재하고, 그 점이 18세기 회화의 전개와 긴밀하게 맞닿아 있다.

첫째, 두 화가의 그림은 철저하게 당시의 산수화와 실경화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김홍도의 ‘춘화사계첩’이 암시하고 있듯이 사계절의 흐름이 주요 배경으로 제시되고, 여기에 남녀의 교합지상(交合之狀)이 농밀하고도 곡진하게 제시된다. 특히 혜원은 봄과 초여름의 무르녹는 배경을 제시하고, 은근하고도 발랄한 남녀의 만남을 그린다. 혜원이 가장 즐겨 그렸던 진달래꽃이 피는 봄철의 나들이는 가장 혜원다운 풍모를 보장한 것이 아닌가 싶다.

요컨대 두 화가의 성풍속화는 겸재류의 진경산수화가 개척한 기법을 정면에서 계승하고, 달리 인간 중심의 새로운 관찰이 가미되면서 풍속화로 성립된다. 그러나 성풍속화는 이보다 더욱 진전을 꾀해 인간의 내면 심리와 성적 충동이 새삼스러이 만나 가장 한국적인 그림으로 탄생하기에 이른다.

둘째, 극도로 억제되어 왔던 성적 관념이 돌출하면서 인간의 성적 욕망을 당연하게 여기는 새로운 조류가 두 화가에 의해 마련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시기에 주체적 인식과 자

아각성이 이루어지게 된 계기는 역시 지리학의 발달과 인간 내면의 재인식이 축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지리학의 발달은 여행의 촉진과 문물의 흐름이 강화되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인간 내면의 재인식은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 가운데서 후자는 자연스러운 성적 욕망을 발현하는 계기로 된다.

두 화가의 성풍속화에 나타난 공통점은 결코 흠으로 나타난 우연이 아니다. 18세기 이래에 지속적 인기를 누리왔던 판소리 '변강쇠가'의 장면이나 사설시조의 작품에서 성적 묘사를 만나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 그만큼 회화나 문학이 서로 맞물려 동일한 흐름을 견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적어도 18세기는 우리를 우리답게 알 수 있는 정확한 증거를 제시한다.

18세기의 문화적 난숙은 19세기나 금세기로 이어지지 못하고 급격하게 몰락하였다. 구체적으로 성풍속화의 경우를 보면 저마다의 독자적 특징을 살리지 못한 채 단원과 혜원의 작품을 거둬 모작하는 베끼기에 여념이 없다. 너무나 놀랍게도 근대 화가의 작품 역시 혜원의 구도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어서 성풍속화의 급격한 몰락을 실감하게 된다. 그러한 성향은 다른 풍속화나 진경산수화의 퇴조와도 깊이있게 연결된다. 예술사의 외적 조건이 너무도 열악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구한말의 숨겨진 정치상황 이래 우리의 문화적 운명은 치명적인 것이 된다.

그러한 우리의 경우와는 다르게 일본의 회화는 비약적 발전을 거듭한다. 특히 우리의 풍속화 또는 성풍속화와 견주어지는 우끼요에(浮世繪)가 결정적 계기를 부여한다. 성풍속화가 단색판화, 다색판화, 인쇄의 순서로 발전하면서 전세계에까지 알려지는 행운을 얻게 된다. 남녀의 농밀한 만남이 거리낌없이 제시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그리는 화가들이 자기 상표를 개발하면서 독자성과 변별성을 구현하게 된다. 더불어서 판화로 인쇄되는 이유는 결국 다수의 구매자를 전제한 것이기 때문에 유통구조의 발전과 맥을 함께 한다. 우리의 성풍속화가 은밀

하게 유통되는 것과 좋은 대조를 보인다.

자세한 사정은 논의될 자리가 아니지만, 우끼요에의 행운은 서양미술사의 흐름과 엇물리게 된다. 동·서양의 기법이 주고 받기를 거듭했었는데, 우끼요에의 경우는 인상과 형상에 결정적 기법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 고흐나 폴 고갱이 우끼요에를 통해서 자신들의 화려한 기법을 계발하고, 일본에찬론을 거듭 늘어놓았다. 일본에 대한 호감적 정서는 일본의 문화 상품에 대한 저항감을 상쇄시키고 일본의 공예품에 대한 발전을 촉진시킨다. 그러자니 일본의 수출품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 문화상품의 전략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 회화는 물론이고 공예 예술이 급격하게 몰락해서 공예를 전공한 학생은 그 어디에도 진출할 수 없다는 소식이다. 그렇게 활발하고 위대하던 우리 예술의 엄청난 몰락을 어떻게 되살릴 수 있는가 답답한 노릇이다. 18세기의 문화적 자존심을 회복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연구해서 오늘날에 계승할 방향을 모색해야 마땅하다.

가장 큰 고민은 '18세기학'을 수립하기 위해 적지 않은 장애가 있다는 점이다. 포괄적 학문론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우선 자료의 결핍이 가장 어려운 과제다. 성풍속화의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그 행방조차 알 수 없으니 안타깝다. 또한 수많은 자료가 수장가의 손에 소장되고 일실되어 공개되지 않으니 더욱 가관이다. 하루속히 우리 민족문화의 보존을 위해서 자료가 공개되어야 되진 우리의 문화적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

김현선 / 경기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경기대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86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서 문학평론, 88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서 음악평론이 당선되었다. 저서로는 『풍물굿에서 사물놀이까지』와 『한국의 창세신화』 등이 있다.